

이문화(異文化)의 융합을 통한 청계천 도시공원화 디자인 연구

- 도시공원과 제주도 올레문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heonggyecheon City Park Design through Fusion of other Culture

오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

Oh, Hyun

Dept. of Industrial Design, University of Seoul

서홍석

전북대학교 디자인제조공학과 박사과정

Seo, Hong-Seok

Dept. of Industrial Desig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유재춘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Yoo, Jae-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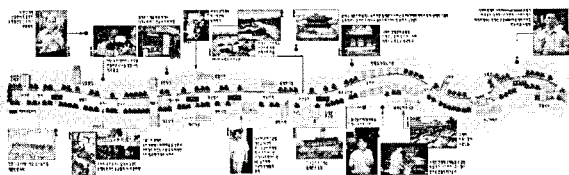
Dept. of Industrial Design, University of Seoul

• Key words: 이문화의 융합(fusion of other culture), 도시공원문화, 올레문화, 청계천

1. 서론

21세기 문화시대의 도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도시민들의 삶의 가치의 변화는 여가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수요 욕구의 충족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는 성향을 증대 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성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소홀한 편이며, 근래에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 대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상적 측면에 치우친 기존의 방식과 문화적 정체성이 결여된 선진국식 흉내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산업시대를 벗어난 현재 사회의 화두는 문화(Culture)이다. 그리고 도시민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여가와 휴식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간으로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청계천 상황을 통해 반영 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는 이문화(異文化) 간의 융합을 통해 각 문화에 내재된 가치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제3의 새로운 문화로 재창출 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도시공원과 올레라는 공간에 내재된 문화 요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두 문화의 융합을 통해 추출되는 어울림, 은유, 소통이라는 공유가치 요소를 재해석하여 청계천 상황의 다면평가 방법을 통해 청계천이 다양하고 새로운 도시공원 문화의 특성을 갖는 도심 속 문화공간화 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의 추출과 연구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청계천 복원구간과 주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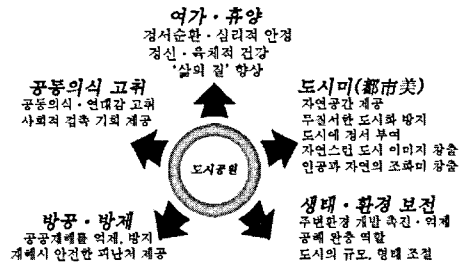


2. 문화로서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개념은 오픈 스페이스의 하나로, (Lynch, 1982: 442-447) 도심 속에 위치한 열린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휴식,

놀이, 체합의 공간이며,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공간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여가활동, 스포츠, 휴식, 예술 및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기능은 도시공원만이 갖는 문화를 형성시키게 된다.

[그림 2] 도시공원 문화요소



3. 올레문화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올레'라는 사유공간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했다. 올레는 집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로서 제주사람들의 공동체문화와 전통마을의 고유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올레는 단순히 통행을 위한 기능이나 영역을 구분하는 공간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올레는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랜드마크로서 마을의 기하학적·경관적인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어울림의 공간이며, 농경생활에 의한 노동을 위한 공간이며, 지친 삶에 여유와 휴식을 마련해 주는 휴식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즉 올레는 생활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 제주사람들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올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감정의 통로가 되었

[그림 3] 제주의 올레

